

BUSAN URBAN PLANNING MAGAZINE

# 2021 December

부산도시계획 아고라 www.busan.go.kr/build/agora

# BUSAN U<sup>2</sup> vol. 33

# 부산도시계획정보지

부산 유 스케어(Busan U<sup>2</sup>:Busan U Square)는 부산도시계획정보지의 별칭으로 부산의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부산에 사는 당신 (you:U)이 만나는 광장이며, 접합점(X)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1 December vol.33

# **CONTENTS**

03 특집

해상도시 (Floating City)

06 특집Ⅱ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09

정책동향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樂날樂'

10

정책동향Ⅱ

"낙동강 생태공원을 누비다" 낙동강 하굿길(Ha-Good Trail) 100리! 14

알기쉬운 도시계획 문화재보호구역

16

취재리포트

제6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18

법령 제·개정 소식

19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결과







2021. 12 (통권 33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대표전화: 051-888-2474





# 해상도시(Floating City)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2021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은 1973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아 연평균 기온이 13.2℃로 역대 5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6년의 기온이 상위 5위 안으로 기록되는 온난화 경향을 이어갔다.

또한 중부와 제주의 장마는 역대 가장 긴 54일과 49일을 기록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693.4㎜로 역대 2위, 여름철 강수량은 1,012.4㎜로 역대 3위, 연 누적 강수량은 1.591.2mm로 역대 6위를 기록한 해였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는 1조 2,585억 원이 발생하여 연평균 3,883억 원의 3배를 기록하였고 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연평균 14명 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2020년의 기후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가 이상기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며 기후위기(Climate Crisis)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UN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6차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시나라오에 따라 2100년 지구의 온도가 1~5.7°C 상승하고, 해수면은 0.28~1.01m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과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 닥친 문제이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 UN-Habitat 해상도시 계획

2019년 4월 UN은 뉴욕 본부에서 열린 제1차 지속가능 해상 도시 고위원탁회의에서 해상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는 UN 산하 기구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목적 으로 설립된 UN-Habitat(UN인간정주계획)가 주관한 것으로 이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전 세계 대도시의 90%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이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급변 하는 환경 조건에 대응하는 도시 건설과 취약 인구를 보호 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해상도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린 단위의 육각형 섬 6개가 모여 하나의 마을 단위의 섬을 이루고



<UN-Habitat 해상도시 구상도>

다시 이 마을 단위의 섬 6개가 모여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이 해상도시는 에너지와 물, 식량 등을 자급자족 할 수 있으며, 홍수와 쓰나미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고 물위에 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필요시 도시 자체를 이동할 수 있다.







<UN-Habitat 해상도시 구성 단위>

이 해상도시 계획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해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될 것이고, UN-Habitat의 임무와 작업의 핵심인 지속 가능성, 해양 서식지 재생, 적응성, 확장성, 포용성 등 5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un-habitat 5가지="" 원칙="" 해상도시=""></un-habitat>			
구분	내용		
지속 가능성	<ul> <li>· 폐루프 가공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 농업용 사료, 재활용 사료로 변환</li> <li>· 최신 수증기 증류 기술과 빗물 집수 시스템을 통해 맑은 물 확보</li> <li>• 태양, 바람, 파도를 통해 에너지 생산</li> <li>• 공유 이동수단 사용</li> </ul>		
해양 서식지 재생	<ul> <li>건설자재로 바이오록 사용</li> <li>바이오록은 해안 생태계를 빠르게 재생하고, 오염된 해안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li> </ul>		
적응성	<ul> <li>육지와 같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수면에 따라 오르내리며, 홍수에도 견딜 수 있음</li> <li>도시의 변화에 따라 건물 철거없이 새로운 배치 재구성 가능</li> <li>필요에 따라 새로운 장소로 이동 가능</li> </ul>		
확장성	・최소단위는 300명이 거주 가능한 2만㎡의 근린 단위 ・근린 단위가 6개 모이면 마을로, 마을이 6개 모이면 도시로 확장		
포용성	<ul> <li>도시는 거버넌스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 결합 가능</li> <li>참여적 접근법을 통해 창의적이고건강한 공동체 구성</li> </ul>		

2021년 7월 UN-Habitat는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시제품 개발을 위한 파트너 도시로 부산시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는 UN의 목표는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 시정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해상 도시 파트너로서 참여하고자 한다.

해상도시의 시제품은 UN-Habitat가 구상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근린 단위(2만㎡)의 부유식 해상 섬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투자와 설계, 건설 등은 UN-Habitat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OCEANIX에서 맡을 것이며, 부산시는 2만m'의 시제품을 배치할 수 있는 해양공간과 내륙의 임시 건설 부지 제공, 해상도시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를 협조 하게 된다.



<UN-Habitat 해상도시 시제품 도입시설(안)>

부산시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UN 실무단이 부산을 방문 하여 해상도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연내 MOU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 도시로서 부산시가 참여하여 해상도시가 건설되면 해상도시 건설 선진기술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세계 속 부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몰디브 해상도시의 공사는 2022년에 시작해 향후 5년간 단계적 으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몰디브는 이 해상도시 계획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서 해수면 상승과 해안의 침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번영할지를 주도적으로 보임으로써 나우루나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제도와 같은 환초 국가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몰디브 해상도시 계획

인도양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나라 몰디브는 1,192개 산호섬 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섬 나라는 평균 해발 고도 1.5m, 최대 해발 고도는 2.4m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섬에 기반을 둔 나라보다 몰디브와 같이 환초(고리 모양을 이룬 산호초)에 기반을 둔 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사라질 대표 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몰디브 정부는 해수면 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Dutch Dockland와 협력하여 MFC(Maldives Floating City) 계획을 발표하였다. 몰디브의 해상도시는 수도인 말레 국제공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초호(산호초로 둘러싸인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에 건설할 계획이다.

Dutch Dockland에 따르면 몰디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호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매립을 하지 않고 해상에 띄워서 건설할 계획이다. 뇌 산호의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를 본떠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구조물 위에 약 200만m'의 초호를 가로지르는 유연하고 기능적인 격자를 따라 수천 개의 해안가 주택과 병원, 학교 등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과 호텔, 레스토랑, 미리나 시설 등이 함께 건설된다. 이 위치는 초호 주변의 환초로 인해 파도의 영향을 줄여 구조물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몰디브 해상도시 구상도>

#### <u>참고자료</u>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www.oceanixcity.com https://maldivesfloatingcity.com



#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부산의 핵심전략사업인 '15분 도시'에 대하여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를 연재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는 8개 구를 투어하고자 한다.

#### 15분 도시란?

15분 도시란 이동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교통·주거·환경·시설 비효율 등을 해소하고,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중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사상구, 금정구를 방문하였으며, 나머지 5개 구·군에 대한 비전 투어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박형준 시장은 해운대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차산업혁명 거점기지를 구축하여 부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여 남부권 창업 허브도시로 도약하며, 신성장동력 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부가가치가약 24조원, 고용약 7만명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풍산공장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으로 부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 마련과 역동적 변화 발전 모습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컨셉>

# 중구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

중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용두산공원을 방문하여 용두산

공원을 메타버스 등 미디어 아트가 구현된 첨단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구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 콤팩트 타운 조성의 최적지이다. 청년층의 니즈를 반영하여 주거·배움·일·놀이가 융합된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층이 주도하는 창업혁신 타운을 계획하고, 지하철로 지역과 지역을 잇고 북항 재개발구역과 연계하여 최적화된 업무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콤팩트 타운은 한 공간에서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융합된 복합청사 개발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직주일체 도시를 만들고,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학교,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재미있는 돌봄교육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역세권 복합 콤팩트타운 개념도>

#### 동래구 '동래생활복합센터'

동래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동래구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신청사 준공 이후 임시청사 부지에 조성될 '동래생활복합센터'에 어린이를 위한 창의 체험공간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자는 비전을 제안하였다.

역사적으로 부산지역의 중심이었던 동래구는 현재도 부산 최고의학군 중 한 곳이며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최근 도시발전과 함께

교통혼잡도 증가 및 도로 노후화에 따른 신규 도로증설 등 생활 SOC측면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래구 반송로에서 진입광장으로 인한 건물의 개방성과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동래구 임시 청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내진설계 및 자동소화 설비가 미적용된 구역은 보수 및 보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래생활복합센터는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2024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 수영구 '복지 하나로센터'

수영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가칭)수영구 복지 하나로센터' 건립 예정지인 호암근린공원 서측 주거지 주차장을 방문하여 복지 하나로센터를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다기능화 추진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복지 하나로센터는 구청사의 과밀화로 인한 공간 부족 해소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대비한 복지업무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로 기결정되어있는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영구 복지 하나로센터는 2022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가칭) 복지 하나로센터 조감도>

### 연제구 'ICT 청년창업허브'

연제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ICT 청년창업허브' 조성 예정지인 옛 동남지방통계청을 방문하였다. ICT 청년창업허브에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공간을 마련 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만들어 인근 행복주택과 함께 청년의 직장과 주거가 15분 생활권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깨우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 버스 등 ICT기술을 접목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늘려 교육,

놀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은 올해 10월에 착공 하였고,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며, 2022년 2월 부산청년창업 허브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 남구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남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의 일부인 부경대 대연캠퍼스 내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조성 예정 구간을 방문 하여,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15분 생활권을 위한 보행친화.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은 기존 자연과 연계된 700리 갈맷길에 도심 속 300리 걷기 좋은 길을 추가해 누구나 걸어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신규 15개 노선을 중심으로 장애인, 노약자도 쉽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노선별로 테마를 지정해 스토리가 있는 도보 관광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① AR 기반 스마트 스트리트, ② 부경대 워커하우스 스마트 기념관, ③ 부산예술회관 광장 역사평화 VR체험관, ④ 평화공원·UN조각공원 스마트 파크로드, ⑤ 대학로 디자인 거리, ⑥ 대학로 문화골목 일원 스마트 프리존 구축, ⑦ 청년창조발전소 블루웨이브 로드, ⑧ UN조각공원 앞 평화 3D 트릭아트존 등 총 8개의 스토리로 구성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도심 갈맷길 300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부산시 도심에 조성할 것이다.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조성계획도>

### 사상구 '삼락동 지역산업혁신거점'

사상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삼락동 사상공업지역 현장을 둘러본 후 '삼락동 지역산업혁신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상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상공업지역은 80년대 부산의 고도 경제성장 첨병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공장 이전 등 전반적인 쇠퇴로현재는 활력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그래서 전체 사상공업지역을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코자 삼락동 삼락중학교와 솔빛학교부지에 지역산업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개발(R&D)센터를유치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에 도움을 주며, 산학협력 역할을할 캠퍼스 혁신센터를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젊은 인재 유입이원활해지도록할 것이다.

사상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주변 공업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복합용도의 유기적인 혼합배치로 토지효용성 확보 및 사업 주체별 분리배치를 통한 원활한 기능 수행을 제고한다. 본 사업에 직주 콤팩트타운 개념의 15분 생활권 구상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사상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2027년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삼락동 지역산업혁신거점 개발계획(안)>

# 금정구 '금샘도서관 & 윤산터널 상부 생활공원'

금정구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는 개관 준비중인 금샘도서관과 윤산터널 상부의 생활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근거리에 힐링과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권 도시 숲과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샘도서관은 산성터널 접속공사 윤산입구(터널상부)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동부산권의 부족한 복합문화체험공간을 조성 하여 지역의 교육·문화 균형을 도모코자 하며,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시설 절대부족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다.

11월 10일 금샘도서관 개관으로 어린이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교육관 등 복합문화 기능을 갖춘 훌륭한 도서관이 금정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도서관 인프라는 전국 평균인 도서관 1개당 서비스인구 4만4천명에 못 미치는 7만3천명으로 우선 2025년까지 20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그 인원을 4만 8천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윤산터널 상부 나대지 공간과 금샘도서관을 연계한 도심지 도시 숲 조성을 통하여 생활권 도시숲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샘도서관 조감도>



<윤산터널 상부 생활공원 조성사업(안)>

#### <u>참고자료</u>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樂날樂'

####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식

최근 핵가족화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들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놀이문화, 소통의 장이 절실하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은 시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아이와 부모가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은 부족하다. 이에 부산시는 15분 도시의 첫걸음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18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집에서 차량으로 15분 내 이용 가능한 거점형과 도보로 15분 내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으로 구분되며, 도서관 기능에 디지털 기기를 결합한 체험관과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전시관, 인공지능(AI) 활용 영어교육 등이 가능한 학습관, 부모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관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청 1층에 조성 추진 중인 열린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71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00개소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문화서비스 시설 거리를 실질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시설과 복합하거나 신규 설치를 통해 15분 거리에 촘촘하게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독서, 체험·공연, 교육·상담, 가족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네이밍은 290여명이 참여한 시민 공모를 거쳐 부산 어린이들이 들락날락하며 즐기고 누리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의미로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친근감 있게 표현한 '들樂날樂'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樂날樂'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혁신기술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며, 아이와 부모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미래도시, 부산으로 나아 갈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청년산학창업국 교육협력과 내부자료









# **"낙동강 생태공원을 누비다"** 낙동강 하굿길(Ha-Good Trail) 100리!

낙동강 생태공원 5개소와 이를 연결하는 낙동강 하굿길 100리에 대해 소개한다.

#### 낙동강 생태공원

낙동강 생태공원은 1986년 낙동강 하구언 공사 이후 수질과 환경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낙동강하구에 대한 생태적 측면의 연구가 확대되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이 계기가 되어, 1998년 낙동강변 습지에 삼락 생태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 맥도 생태공원 정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율숙도 생태 공원, 화명 생태공원과 대저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낙동강하구 습지에 낙동강 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낙동강 생태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환경 파괴가 지속되면서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서식지를 잃어가는 현재의 도시에서 생물 종 다양성 보호와 동·식물의 보호처이며, 사람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과 자연학습 및 관찰 등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낙동강 생태공원 5개소의 조성과정과 편의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고, 5개 생태 공원을 연결한 낙동강 하굿길(Ha-Good Trail) 100리의 의미와 추진배경, 낙동강하굿길 100리 코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낙동강 생태공원 위치도>

#### ● 삼락 생태공원

삼락 생태공원은 사상구 삼락동 일원에 위치하며, 낙동강하구 둔치 중 가장 넓다. 1998년 비닐하우스 경작지였던 곳에 조성되었고, 2006년 '부산광역시 낙동강 둔치 재정비 사업'으로 겨울 철새 먹이터로 이용 하기 위한 친환경 영농원과 물놀이장 등 체육시설과 습지를 복원하였다. 2009년 영농원은 철거하여 철새 먹이터, 습지 등으로 복원하였고, 일부 공간에 계류장을 조성하여 수상레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하였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어린이 물놀이장과 감전 야생화 단지 및 삼락 습지 생태원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삼락 습지 생태원>

<물억새 탐방로>

<야외수영장>

#### ● 맥도 생태공원

맥도 생태공원은 강서구 명지동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부터 대저2동 낙동대교까지 위치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과거부터 벼농사 등의 농경지로 이용되어 겨울 철새들에게 먹이터 겸 쉼터로 활용되던 곳 으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 지정되어 있다. 2006년 겨울 철새 먹이터로 이용하기 위한 친환경 영농원, 축구장을 포함한 운동시설, 습지 등을 조성 하는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 2009년 영농원을 철거하고, 철새 먹이터 겸 쉼터, 갈대밭과 연꽃 단지 및 수생 식물원의 조성과 축구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낙동제방벚꽃길>

<연꽃단지>

<물억새·갈대 군락지>

#### ● 을숙도 철새공원과 생태공원

을숙도 철새공원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을숙도 하단부에 위치 하며, 과거 경작지와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이용되던 곳이 었다. 1999년 을숙도 습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모습으로 변화 하였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와 낙동강하구 생태관광의 중심지이며, 복원된 습지에는 많은 철새가 찾아온다. 탐방객을 위해 낙동강하구 에코 센터,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을숙도 생태공원은 을숙도 상단부(과거 일웅도)에 조성되어 있으며, 을숙도 철새 공원과 함께 을숙도 공원을 구성하고 있다. 을숙도 생태 공원은 과거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용되던 곳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생태 호수, 양서류 서식지, 나무 데크, 중앙 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낙동강에코센터>



<을숙도 조각공원>



<남단탁조대>



<핑크뮬리 군락지>

#### ● 화명 생태공원

화명 생태공원은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인근부터 북구 화명동 대동화명대교까지 위치하며, 낙동강하구 둔치 중 면적은 가장 작으나, 화명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다. 야구장과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고루 갖추고있고, 연꽃 습지가 생물 서식처로 있다. 산책로와 수생 데크가 설치되어휴식과 자연 체험학습을 하기에 좋으며, 해양레포츠 시설, 야외 수영장등으로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금계국단지>

<수상레포츠타운>

<야외눈썰매장>

#### ● 대저 생태공원

대저 생태공원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지역으로 강서낙동강교 인근부터 구포낙동강교까지 위치하며, 2009년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상·하단부 일부 지역에만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습지 및 자연초지 등으로 복원되었다. 신덕 습지와 유채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채꽃 단지에서 개최되는 유채꽃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유채경관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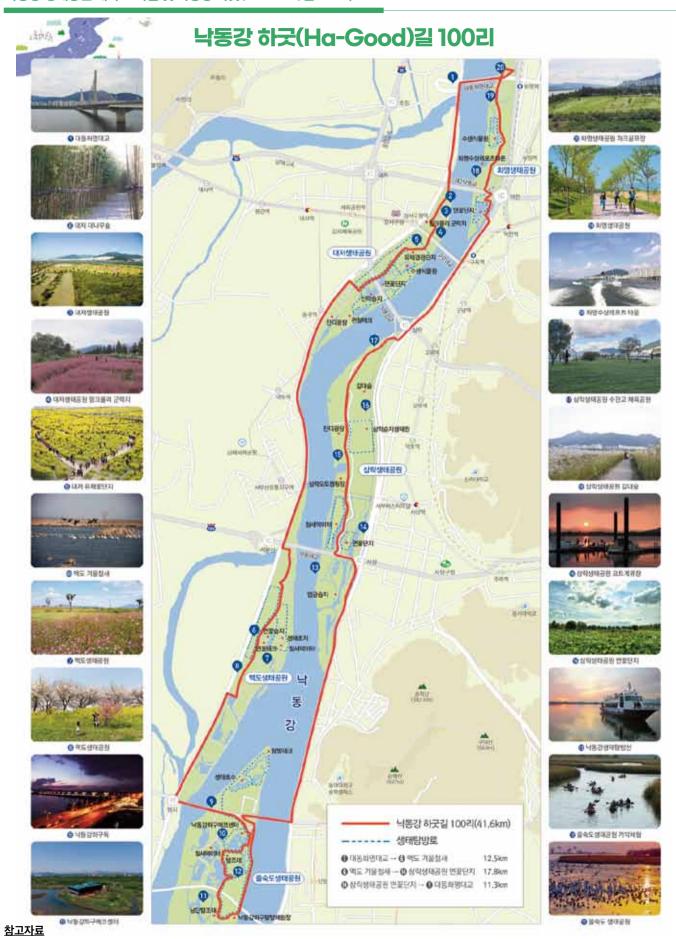
<대나무 숲>

<캠핑장>

#### 낙동강 하굿(Ha-Good)길 100리

낙동강 하굿길 100리는 독립된 5개 생태공원을 순환 연결하는 시민 산책로 코스 개발로, 도심 내 생태 휴식공간인 낙동강하구 생태 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굿길(Ha-Good길)의 의미는 긍정(Ha - '하하하' 웃음소리 의성어, Good - 잘함)과 치유 (생태공원)의 산책로이며, 새로운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성찰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산책로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낙동강 하굿길 100리는 약 40km이며, 도보를 이용할 경우 약 9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하굿길 100리는 경부선 철도 화명역·구포역 등과 도시철도 덕천역·강서구청역·사상역·하단역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향후 낙동강 하굿길 100리의 보행환경 등 주변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낙동강 하굿길 100리'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낙동강 생태공원과 낙동강 하굿길 100리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용어에 대하여 소개한다.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하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또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외곽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재의 원형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하는데 국보나 보물 등의 유형문화재를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증설, 철거, 형질변경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HGIS)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HGIS)'는 문화재 정보와 지도 정보가 결합한 공간정보 활용체계이다. 문화재 위치 정보, 속성정보에 대한 공간 데이터베이스와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컨텐츠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이다. 문화재의 사진 및 도면, 영상, 설명 등의 정보가 위성기반의 위치정보와 함께 결합되어 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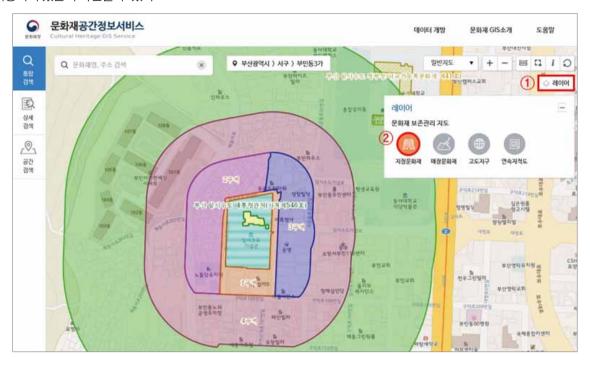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문화재별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지도를 통해확인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도면 영상 설명 지도 서비스

####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활용방법

먼저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에 접속하여 ① 우측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② 바로 아래의 지정문화재를 클릭하면 문화재별로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표시된다. 그런 다음 문화재를 찾아 확대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몇 개의 구역으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역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③ 우측 상단의 i 버튼을 클릭 후 ④ 문화재 지정구역을 클릭하면, ⑤ 화면 좌측에 문화재 기본정보가 나타나는데 ⑥ 아래의 고시문을 클릭하면 각 구역별 상세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알 수 있다.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2021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문화재청, 2019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gis-heritage.go.kr



# 제6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부산시는 시민중심 시정운영과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계획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는 벌써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각종 행사나 대면 회의 등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므로 제6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기존에는 협소한 장소로 인해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강인원의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수강신청 할 수 있었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제6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는 새롭게 시도된 만큼 "부산의 도시비전", "최신 이슈와 트렌드", "건축·기반시설·오픈스페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AI smart city, 부산이 기회인가?'를 주제로 경성대 남광우 교수가 강의하였다. 강의내용은 AI와 AI스마트 도시의 정의, 스마트기술과 AI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시티를 조성한 프랑스 파리의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도시는 AI스마트기술을 주도하는 혁신의 진원지가될 것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설계해나가는 역량을 키워야 인간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Al smart city, 부산이 기회인가? : 남광우>

두 번째 강의는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첫걸음,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동의대 정병길 교수가 강의하였다.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위상,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탄소중립 선언국가, 탄소 중립 기술 등 알아보았다. 탄소중립도시 사례로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 생태도시를 조성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일본의 후카자와 환경공생주택단지, 융복합형 허브&스포크형 네트워크 도시를 조성한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 탄소중립 : 정병길>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중심 도시 재생'이라는 주제와 '포스트코로나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대 마강래 교수와 단국대 김현수 교수가 강의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중심 도시재생에 대한 주요 내용은 향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공간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공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혁신성장기업이 수도권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하였다. "국토 불균형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상생과 협력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및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중심 도시재생 : 마강래>

포스트코로나 도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멈춤을 극복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용어인 메타버스가 활성화 되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디지털플랫폼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급변하게 되었으며, 인구의 이동으로 지역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포스트코로나 도시정책으로 혁신거점을 조성한 런던, 서울, 천안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모빌리티의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하이퍼루프 시범단지 조성과 복합환승센터, 광역급행철도사업 등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생활권 도시에 대해 소개되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현재의 도시계획제도는 산업시대의 것으로 현재 문제를 과거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미래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 하였다.



<포스트코로나 도시정책: 김현수>

다섯 번째는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이 부산시 공원녹지 정책과 선진도시 사례에 대해 강의하였다. 공원 및 녹지의 정의와 종류, 체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외사례로 런던의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인 하이드파크와 뉴욕의 센트럴 파크, 보스턴의 빅딕 등 여러 공원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강의 끝에 "도시 내부의 공원녹지를 채우고 이어서 모두가 향유 할수 있는 촘촘한 공원녹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원녹지를 조성 하여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공원녹지의 구조를 개편해 나아갈 것" 이라 하였다.



<부산시 공원녹지 정책과 선진도시 사례: 이동흡>

####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여섯 번째는 '도시와 건축: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주제로 부산대 공윤경 교수가 강의하였다. 베네치아의 위치와 도시의 현황 특징을 시작으로 모세라고 불리는 홍수 예방시스템과 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정치·종교·사회·문화의 중심인 산 마르코 광장을 비롯하여, 베네치아의 상징인 산 마르코 대성당 등 유명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였다.



<도시와 건축 '물의 도시 베네치아' : 공윤경>

마지막 강의는 '국가 공항 정책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주제로 부산대 정헌영 교수가 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항 운영 실태, 공항 위계의 변천 등을 설명하였다. "가덕 신공항은 24시간 운영 하는 관문공항으로 위상의 격상과 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이 재난이나 유사시 대체가능한 공항,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가진 공항 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추가로 "가덕 신공항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메가시티의 완성을 앞당기고, 물류산업, 항공 산업,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유치도 가능해질 것" 이라 전망하였다.



<국가 공항 정책과 가덕신공항: 정헌영>

제6기 부산시민 도시계획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는 막을 내렸지만. 12월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료식 에는 동아대 황기식 교수의 '15분 도시의 이해'와 (주)사콘느 윤보영 대표의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다'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등과 함께 가능성 연구소 서종우 대표의 사회로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는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 법령 제·개정 소식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을 알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21. 9. 29. [시행] 2021. 9. 29.

# l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제43조제2항) l

용도지역상 허용 가능하나 항만 시설물보호지구 안에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중 항만시설물보호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가능 여부가 적합

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21. 10. 8. [시행] 2021. 10. 8.

# l 용적률 중첩 적용 규정 명시 및 범위 설정(제78조제7항 신설) l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중첩 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로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2021. 10. 12. [시행] 2021. 10. 12.

# l 역세권 복합개발 공원녹지 확보 기준(별표7제1호다목 신설) l

역세권 등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

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완화할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이 상업지역일 것,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1. 11. 2. [시행] 2021. 11. 2.

# Ⅰ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Ⅰ

일반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등을 생활숙박시설로용도를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수있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Ⅰ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Ⅰ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처마·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건축면적을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 l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별표 2 비고1) l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알린다.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제9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1.9.29.)	①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해운대구 반여동, 동래구 명장동 일원]	<ul> <li>명장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결정</li> <li>중로 1-327호선(신설) - L=1,339m, B=20~30m</li> <li>중로 2-345호선(신설) - L=44m, B=17m</li> <li>중로 3-42호선(변경) - 일부구간 확폭(250m)</li> </ul>	원안가결
	②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안) [수영구 수영동 550번지 일원]	• APEC나루공원~좌수영로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 L=212m, B=4~13m	원안가결
	③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재심의 [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 ]	• 면적 : 88,211㎡ • 세대수 : 1,793세대 • 용적률 : 274% 이하 • 높이 : 105m 이하	재심의
	④ 괴정7 재개발시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	면적 : 95,890m²	수정가결
	⑤ 재송동 구)한진(Y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협상제안서(변경) 제출에 따른 자문(안)	• 면적 : 54,480㎡       • 세대수 : 2,082세대         • 용적률 : 900% 이하       • 높이 : 255m 이하	자문
제1회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2021.10.13.)	① 연지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부산진구 연지동 250번지 일원 ]	•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와 공공청사부지로 변경	원안가결
제10회 도시계획 위원회 (2021.10.27.)	① 도시관리계획(광장) 변경결정(안) [ 북구 구포동 1060-22번지 일원 ]	• 구포역사 증축계획에 따라 구포역 앞 광장 축소 • 면적 : 5,522m' → 2,438m'	원안가결
	②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수영구 민락동 715번지 일원]	•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 면적 : 19,952m²	원안가결
	③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사하구 감천동 94-1번지 일원]	• 면적 : 134,823㎡ • 세대수 : 2,948세대 • 용적률 : 273% 이하 • 높이 : 110m 이하	재심의
	④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재심의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 면적 : 83,596㎡ • 세대수 : 1,804세대 • 용적률 : 289% 이하 • 높이 : 120m 이하	재심의
	③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재심의 [동래구 칠산동 246번지 일원]	• 면적 : 399,960㎡ • 세대수 : 5,071세대 • 용적률 : 230% 이하 • 높이 : 117m 이하	재심의
제2회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2021.11.10.)	① 부곡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금정구 부곡동 279번지 일원 ]	• 면적 : 125,797㎡ • 세대수 : 2,301세대 • 용적률 : 275% 이하 • 높이 : 105m 이하	재심의
제5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2021.11.10.)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강서지구) 변경결정(안) [ 강서구 대저1동 2377-10번지 일원 ]	• 소공원(번덕 5공원) 위치 변경	원안가결
	② 남구 대연동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자문(안) [ 남구 대연동 216번지 일원 ]	• 면적 : 10,872㎡ • 세대수 : 211세대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75m 이하	자문

# 도시의 미래 15분 도시







